

아산, 그의 삶과 생각의 뿌리로서의 유학사상

Confucianism as the Root of Asan's Life and Thought

김민철 (전 서울대학교 강사)

〈목 차〉

1. 유학사상의 정체성
2. 아산의 삶 전반에 투영된 유학사상
3. 구체적 덕목에서 드러난 유학의 핵심가치
4. 맺으며 - 아산, 그의 삶과 생각의 뿌리로서의 유학사상
참고 문헌

〈국문 초록〉

아산의 비범한 인생과 업적 이면에는 유학사상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그는 동아시아의 지배적 이념 가운데 불교가 아닌 유학을 삶의 이정표로 선택함으로써 가난에 체념하고 순응하는 대신, 자신과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취하는 삶을 살았다. 또한 편협한 이기주의와 인위적인 이타주의를 지양하고, 본능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확장시켜 유학의 이상인 대동(大同)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유학적 가치는 아산이 살아가면서 보여준 구체적인 덕목에서 더 잘 드러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세 가지는 배움, 신용, 그리고 진취성이다. 아산은 과오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배워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유학의 수양론을 누구보다 잘 실천한 기업인이다. 또한 아산은 현세지향적인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신용을 불가능한 상황에서조차 견지함으로써 그 가치에 대한 신념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었다.

아산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유학적 덕목은 도전적인 사고와 태도이다. 아산이 가장 좋아했던 유학자인 맹자의 표현 그대로, 그는 광자(狂者)의 화신이었다. 맹자가 이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가능한 최고의 인간상으로 꼽은 '미친 놈'과 같은 자신감과 진취성을 현실에서 아산보다 잘 보여준 사람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삶 전반에서만 아니라 구체적 행동 강령에서도 아산에게 삶과 업적의 이정표 역할을 해 준 것은 그가 선택한 공맹의 유학이었던 것이다.

주요어 : 아산, 유학, 광자, 확장, 대동, 배움, 신용

1. 유학사상의 정체성

유학을 동아시아의 핵심 이념으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중국의 경우 한대(漢代) 이후 국학(國學)의 지위에 올랐고,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이후 사상계를 독점하다시피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동아시아인들에게 유학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친근하게 느껴지지만, “유학적인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학자들조차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 제목에서 암시되듯이 유학을 단순하게 극단적인 상명하복이나 절대적인 충효의 이데올로기, 혹은 원칙보다는 혈연과 지연 등을 따지는 불합리한 사고의 근원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한 시각이 전혀 얼토당토않은 것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는 없지만, 어떤 사상의 정체성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 본연의 정신과 그 사상을 추종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 혹은 집단이 보이는 행태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유학은 근본적으로 정치인이나 학자의 사상이다. 요순우탕문무(堯舜禹湯文武)처럼 유학에서 이상적 인간상인 성인(聖人)으로 숭상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은 대개 왕이었다. 인격적 도야를 통해 완성된 인간의 모습이 정치에 실현되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던 것이다. 학자라고 예외될 수는 없었다. 현실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완성된 인격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정치에 투영되어야 이상 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실현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뿐 아니라, 왕이 아니면서 성인으로 숭상받는 주공이나 맹자, 그리고 후대의 주자 역시도 그러한 정치 지향적 인물이었다. 따라서 중국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유학자, 즉 사대부는 학자이자 도덕가인 동시에 언제나 예비 정치가 집단이었다. 학문에서 깨달은 바를 삶에 투영해 내고, 그것을 정치라는 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유학 사상의 기본 목표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산은 학자도, 정치가도 아니다. 따라서 아산 삶의 뿌리로서 유학 사상의 영향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유학의 학문적이고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생활인의 철학과 자세로서의 유학사상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핵심 지배 이념으로 군림해 온 유학사상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자 및 정치인들에게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삶에도 깊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특정 사상의 정체성과 본질적 특성을 고찰하려 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는 그 옹호자들이 백안시(白眼視)하는 이론과 대비시켜 보는 것이다. 색깔도 보색관계를 잘 활용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처럼, 정 반대편에 있는 사상과 비교하여 검토할 때 그 사상의 핵심적인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학의 정체성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면 유학자들이 이단으로 치부했던 것은 어떤 사상이었는지를 알아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유학에서 제기된 이단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맹자에 의해 제기된 고대 유학의 이단론이고, 다른 하나는 신유학, 그 가운데에서도 송대 성리학의 거두인 주희에 의해 제기된 이단론이다. 전자는 유학이 하나의 학파로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의 논쟁이므로 유학에 내재하는 본래적인 성질을 밝히는 데 유효할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조선시대를 지배했을 뿐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증차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1) 고대 유학의 이단론을 통해 본 유학의 정체성

맹자에 따르면 당시 사상계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은 양주(楊朱)와 목적(墨墨)의 이론이다. 맹자는 그 둘을 모두 신랄히 비판하면서, 공자의 유학이 흥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두 이론의 정체와 그들을 배척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도자가 물었다: “외부 사람들은 모두 선생님께서 변론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그 까닭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하였다: “내가 어찌 변론을 좋아하겠는가? 부득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성왕(聖王)이 다시 일어나지 않자 제후들은 방자해지고 재야에 있는 학자들이 제멋대로 떠들어대니 양주와 목적의 이론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어 천하의 이론은 양주 아니면 목적의 이론으로 귀결되게 되었다. 양주는 위아주의(위私主)를 내세우니 이는 군주를 무시하는 것이며, 목적은 겸애(兼愛)를 내세우니 이는 아버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임금을 무시하고 아버이를 무시한다면 이는 금수와 다를 바 없다... 양주와 목적의 도(道)를 존시시키지 않으면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정도에서 벗어난 이론이 백성들을 현혹시켜서 인의(仁義)가 행해

질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례가 두려워 선왕(先王)의 도를 보호하여 양주와 목적을 막고 음란한 말을 추방하여 정도에서 벗어난 이론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¹⁾

맹자가 말하였다: “양주는 위아주의(위私主)를 채택하여 털오라기 하나를 뽑아서 천하가 이로워진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았다. 목적은 겸애주의(兼愛主義)를 채택하여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닳아 없어지더라도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였다.”²⁾

이곳에서 우리는 맹자가 양주와 목적의 핵심적인 이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맹자에게 양주는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중시하면서(諸己) 군주를 무시하는(無君), 그리고 세상의 일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한(一毛而利天下 不顧) 극도로 이기적인 존재이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도덕을 무시함(無義)’과 연결된다. 반면 목적은 보편적인 사랑을 내세우면서(兼愛) 아버이를 무시하고(無父),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가 오더라도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원리를 준수하는 존재(尊天而不顧)이다. 그리고 이는 ‘가족 간 자연스러운 애정의 중요성을 무시함(無仁)’과 연결된다.

겉보기와 달리 양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나와 무관한 것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자신에게 자연스러우면서도 필수적인 것, 다시 말해 자신의 본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남성다운 티프한 모습에 집착한 나머지 어떤 다름에서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폭력배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해 불구가 된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그가 어떤 것이 자신에게 본질적인지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양주는 공자와 같은 도덕가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덕이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아니다. 도덕적 목표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내 놓는³⁾ 유학자들도 결국 위에서 사례로 든 불구자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외관상으로는 변지르르하지

¹⁾ 『孟子』, 「蘇文公」, 下, 9, “公都子曰 外人皆稱夫子好辯 敢問何也...孟子曰 予豈好辯哉 予不得已也 聖王不作 諸侯放恣 處士橫議 楊朱墨翟之言 盈天下 天下之言 不歸規則諱墨 楊氏 爲我是無君也 墨氏 兼愛 是無父也 無父無君 是禽獸也... 楊墨之道 不忠 孔子之道 不著 是邪說誣民 充塞仁義也...吾爲此懼 閔先聖之道 距楊墨 放淫辭 邪說者不傳作”
²⁾ 『孟子』, 「盡心」, 上, 26, “孟子曰 楊子 取爲我 拔一毛而利天下 不爲也 墨子 兼愛 摩頂放踵 利天下 爲之”
³⁾ 공자가 “이천에 도를 들으면 자네에 죽어도 좋다(則聞道 死亦可也)”라고 말했다는 사설에 주목하라.

만 말이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 맹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현되는 도덕성이 인간의 본래적이고 자연적인 모습과 무관한 외적인 것(外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에게서 유래하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임을 천명한다. 나아가 도덕을 실현하는 과정이란 자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가 확장되도록 만들어 줌을 밝히고자 한다. 자식에 대한 헌신을 통해 부모의 자아는 손상되는 것이 아니다. 자식의 기쁨과 슬픔을 내 것 이상으로 공감함으로써 부모의 경험 세계와 자아는 확장되고, 삶의 한계 또한 극복된다. 이러한 원초적인 애정이 타인과의 관계로 확대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아의 손실이 아니라 보다 큰 자아의 완성이 될 것이며, 그 극단은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대동(大同)의 사회이다.

그렇다면 사회와 집단에 대한 극단적인 헌신을 내세우는 목가 학파를 배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목가가 내세우는 것과 같은 전형적인 공리주의에서는 타산적인 개인이 왜 자기 한 사람이 아닌 사회 전체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⁴ 서양의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설명을 시도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궁극적으로는 일치하게 될 것이라는 스피노자 식의 신념일 뿐이다.⁵ 실제로 서양에서 공리주의가 태동하기 2,000여 년 전에 이미 목가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겸애가 인(仁)이고 의(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겸애를 행할 수 없음을 태산을 지고 양자강과 황하(黃河)를 뛰어 넘는 것에 비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겸애란 단지 희망사항일 뿐이지 어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는 말한다; “예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태산을 끼고 양자강과 황하를 뛰어 넘는 사례는 없다. (하)지(地)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 이롭게 해 주는 것은 옛날의 여섯 성왕들로부터 전혀 행해온 것이다.”⁶

4 김태길, 『윤리학』, 박영사, 1998(1994 2판), 84

5 위의 책, 84-93

목자는 동기 부여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제자에게 그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아무리 힘들어도 굳게 마음먹고 해라!”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목가에게 규범이란 나 자신의 자연스러운 성과와는 무관하다. 도덕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올바른 행위 원칙을 파악해 내고, 굳은 의지를 발휘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맹자가 목가에 대해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닳아 없어지더라도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말한 것이다.

맹자에게 목가 식의 도덕 실천은 진정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철저한 위선에 불과하다. 도덕적 행위를 통해 자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 상태에 놓이게 된다. 도덕을 통해 자아가 더욱 성숙하고 윤택해지기는커녕, 도덕적 행위를 하면 할수록 자아는 불모화된다. 진실성과 자아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볼 때, 목가 식의 도덕 실천은 남에게 더 많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기만적인 도덕적인 모습을 띠어야 한다는 노자의 권모술수⁷와 전혀 다를 바 없다. 공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자한 안색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하여 누구에게나 칭송받는 사람을 비판한 것⁸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인 것이다.

맹자는 이 두 가지 극단의 중도(中道)야말로 인간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덕을 실천하고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이란 자아에 함몰된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과 배려에서 잘 드러나며, 위기에 처한 아이를 보면 누구라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과 같은 우연적인 상황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⁹ 양주처럼 그러한 성향을 부인하고 방기해서도 안 되지만, 목자처럼 그러한 성향을 지나치게 조정해서도 안 된다.¹⁰ 자신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져 있는 도덕적 성향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만 실천에 있어서 ‘편안함’과 ‘즐거움’이 수반될 수 있으며, 보다 성숙한

6 『孟子』, 「兼愛」, 下, “兼則仁矣義矣 強顏 豈可爲哉 吾嘗兼之不可爲也 猶攀泰山以越江河也 故兼者直願之也 夫豈可爲之物哉 子墨子曰 夫攀泰山以越江河 自古及今 生民而來 未嘗有也 今若夫兼則愛交地利 此自先聖六王者踐行之”

7 『老子』, 36장, “將欲廢之 必固與之”

8 『論語』, 「陽貨」, 13, 子曰, “鄉愿, 德之賊也.”

9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10 『孟子』, 「公孫丑」, 上, 3, “必有事焉, 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

도덕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¹¹ 도덕적 행위란 가족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랑에서 출발하여 타인과 모든 생명체에게로 단계적으로 확장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주장¹²하는 까닭은 바로 이것이다.

결국 양주와 목적을 비판하는 가운데 맹자는 바람직한 삶이란 인간의 사회성을 부인한 채 개인에만 함몰되어서도 안 되며, 억지로 사회에 대한 개인의 회생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이른바 과부족이 없는 중도(中道) 혹은 중용(中庸)인 것이다.

2) 신유학의 이단론을 통해 본 유학의 정체성

당송(唐宋) 교제기에 등장하여 송대에 완성된 새로운 유학, 즉 신유학(新儒學)은 기본적으로 불교를 극복하기 위해 유학자들이 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물이자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유학은 한(漢)의 무제(武帝)에 의해 국교화(國敎化)되어 사상계의 주도권을 장악했지만, 위진(魏晉)시대부터 당(唐)나라 말기에 이르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당나라 말기에 유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생명력을 갖추기 시작하여, 송대에 이르러 정치적이거나 학문적인 측면 양자 모두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했으며, 이후의 사상사에서 다시 주도권을 빼앗긴 적은 없다.

위진시대부터 당나라 때까지 유학을 대신하여 주도권을 잡은 것은 도교(道敎)와 불교(佛敎)였다. 처음에는 현학(玄學)과 청담(淸談)의 형태로 등장한 도교가 흥하였으나, 후대로 가면서 불교가 대세를 장악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유학자들이 이단으로 배척한 것은 대개 불교가 주를 이루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 첫째로 그들이 본격적으로 세를 장악하고자 노력할 당시에 이미 도교의 영향력은 미미한 상태였으며, 둘째로 신유학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 도교와 불교는 특별히 다를 것이 없으므로 불교를 이단으로 배척하면 도교적인 것은 자연히 배척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위진시대부터 당나라 때까지 불교가 유행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한나라의 통일 시대가 끝나고 분열의 시대가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삼국(三國)의 분열에서 시작하여 수(隋)나라의 재통일에 이르기까지 350년 이상 계속된 분열과

그에 따른 끊임없는 전쟁으로 백성들의 삶은 비참하고 막막하기 이를 데 없는, 짐승만도 못한 것이었다. 수나라 때에도 폭군들의 사치와 그로 인한 대규모 토목공사, 그리고 분열 시기보다 더 거대한 규모의 전쟁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못하였다. 외관상 통일의 시기로 보이던 당나라 때에도 지방의 지배자들인 절도사들의 전횡과 반란으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둘째, 극단적인 계급사회에서 왕과 귀족들의 사치는 끝을 모르는 반면, 그렇지 않아도 비참한 백성들은 더욱 커다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렸다. 왕과 귀족의 가문에 태어나면 대대손손 권력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생사여탈권까지 가질 수 있었지만, 백성들은 희망이라곤 전무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시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불교가 지배하던 고려시대 말기에 유학자들의 노력으로 신유학이 수입되어,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신유학이 독존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불교가 지배했던 고려시대의 상황도 중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려 역시 본질적으로 계급사회였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귀족과 권문세가의 수탈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고려 전기의 지배세력이었던 문벌 귀족은 무신란(武臣亂)으로 몰락하지만, 그 주도세력이 또 다시 권문세가를 형성함으로써 백성들의 삶은 오히려 더욱 악화 일로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¹³ 권문세족은 권력을 독점하였을 뿐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부를 축적하였다. 최충현의 경우는 진주 전체를 식읍(食邑)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경상도에 비축한 쌀이 50만 섬이나 되었을 정도였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문세족들은 온갖 방법으로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았으며, 그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왕실까지 이에 가세함으로써 백성들의 비참한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권문세족의 가노들은 물푸레나무로 만든 체찍을 들고 다니며 토지를 빼앗고 양민들을 노비로 만들었다. 심지어는 세력이 한풀 꺾인 권문세족들까지도 위세 등등한 집안의 가노들에 의해 매를 맞고 토지를 빼앗길 정도였다.¹⁵

¹¹ David S. Nivison, *The Ways of Confucianism*, Open Court, 1996, 105-106

¹² 『孟子』, 「盡心」, 上, 45,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¹³ 이덕일, 『사회로 보는 조선역사』, 석필, 1998, 34-35.

¹⁴ 위의 책, 38-39.

¹⁵ 위의 책, 42-43

현실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백성들은 종교에서 피난처를 찾지 마련이다. 전란으로 인한 분열과 혼란기의 중국이나 김권충의 만행으로 무간지옥(無間地獄)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던 고려의 백성들에게 불교는 매력적인 수밖에 없는 종교 사상이었다. 불교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매우 잘 어울리는 내용을 교리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교는 윤회(輪廻)와 업(業)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 핵심 축으로 한다. 윤회론에 따르면 우리의 삶이란 단발적이고 일회적이 아니라 수레바퀴가 돌듯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불교에서 삶의 네 가지 고통(四苦)이라고 일컫는 생로병사(生老病死) 이후에 또 생로병사가 따르는 과정이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삶의 양상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업이다. 현재(現世)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전생의 삶에서 쌓은 업보(業報)이며, 거기에 현재의 삶에서의 업보가 더해져 내생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끝없는 윤회의 연속 자체가 고통이라 여기고,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절대 자유를 얻는 경지인 해탈(解脫)을 추구한다. 해탈의 경지를 추구하는 데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은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는 것이다. 역으로 현상적인 것들은 영원할 수 없으며(諸法無常), '나'라는 것도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諸法無我), 현실의 모든 것은 결국 허망한 것임(一切皆空)을 깨달아야만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고통 받는 피지배층의 입장에서뿐 아니라 지배 권력을 공고화하려는 지배층의 입맛에도 맞는 것일 수밖에 없다. 피지배층의 입장에서 희망이 전무한 이 세계의 삶은 어찌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일 뿐이다. 제 아무리 선업(善業)을 쌓더라도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은 다음 세상에 대해서나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보다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 현실 변혁을 위한 투쟁과 노력보다는 체념이나 혹은 (종교 표창에서 표현하면) 발상의 전환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무도하고 사치스러운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피지배층이 사회 변혁을 위해 나서는 것보다는 체념하고 순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바람직할 수밖에 없다. 지배층이나 피지배층 양자 모두에게 불교는 분열과 혼란, 고통의 시기에 알맞은 사상이었던 것이다.

당나라 말기에 시작하여 송대에 완성된 신유학은 이러한 허무주의적인 사상을 극복

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유학자들은 불교의 형이상학에 맞서기 위해 인문주의적이고 탈-형이상학적이었던 고대 유학의 틀을 벗어던지고, 이기론(理氣論)에 기초한 과감하면 서도 웅대한 우주론을 도입하여 삶의 의미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불교를 극복하는 데 성공한다.

신유학에 따르면 우주란 그 자체로 형이상인 리(理), 즉 이치 혹은 원리가 형이하의 기(氣)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치는 총체적으로 말하면 태극(太極)이라 부르고, 세분해서 말하면 인의예지신(仁禮義智信)의 오상(五常)으로 분류해 설명할 수도 있다. 모든 존재는 이러한 분연(分節)의 이치인 태극을 온전히 받고 태어난 소우주이다. 따라서 형이상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존재들 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태극을 담은 그릇에 해당하는 기(氣)의 맑고 탁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치를 담고 있는 그릇의 질적 차이로 인해 인간은 오상을 모두 드러낼 가능성과 능력을 가진 존재인 반면,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존재들은 그 가운데 일부밖에 드러낼 수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것이다.

우리의 삶이란 공허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의 소우주이며, 우리의 삶이란 우주의 광대하고 찬란한 이치를 이 세상에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것을 온전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인격 수양의 과정이다. 인간 사회의 차원에서 볼 때 소우주가 확대되어 거대 우주와 합일하게 되는 과정은 개인적 삶의 범위가 확대되어 감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범위가 개체로부터 가족, 친척, 공동체를 거쳐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다. 인격 수양을 통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원초적이고 자연스러운 사랑을 친지와 공동체, 나아가 인류 전체로 확대시켜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최종 목표는 모든 인류가 하나의 가족이 되는 대동(大同)사회이다.

대동사회의 의미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의 완성이라는 사회적 측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아의 범위가 확장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적 측면에서 그 의미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속담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그것은 천리의 실현이자 인격의 완성인 동시에 가장 행복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아산의 삶 전반에 투영된 유학사상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산은 전통 시대의 전형적인 유학자상인 정치가 혹은 예비 정치가로서의 학자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업가로서 아산 삶의 전반적인 모습은 유학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매우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이단론을 통해 드러난 유학의 본질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산의 삶이 유학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근거는 아산의 성장 및 성공의 전반적 과정 그 자체이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산의 유소년기는 빈곤과 고난 그 자체였다고 말할 수 있다. 가난한 집안에 7남매의 장남으로 가족을 진시해야 했던 아산의 아버지는 평생토록 잠자는 몇 시간을 빼고는 언제나 농사일에만 전념하였으며¹⁶, 어머니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성실하여 아버지의 농사일을 거드는 것은 물론, 집에서 가족을 키워내는 동시에 나머지 시간에는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언제나 길쌈을 하셨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에게 주어진 삶이란 겨울이면 죽으로, 춘궁기가 되면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가난의 연속, 그 자체였다¹⁸.

빈곤한 가정환경은 아산의 어린 시절 꿈마저 앗아버렸다. 비극은 소학교 때부터 방학이나 쉬는 날은 물론, 학교에 다녀와서도 농사를 돕느라 자유시간이란 꿈도 꾸지 못할 정도였던 데에서 끝나지 않았다. 가정 형편 상 자의와 무관하게 소학교만 마치고 농부가 되면서 학교 선생님이 되고자 했던 어린 시절의 꿈은 산산 조각나 버리고 만 것이다.¹⁹

그러한 상황에서 대다수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체념하는 것이다. 인도 카스트 제도의 최하층인 수드라, 혹은 그보다 더 하층에 속하는 불가촉천민들이나 조선시대 백정들의 태도가 그러했다. 이러한 체념은 앞서 설명한 분열기 중국이나 고려시대의

¹⁶ 정주영, 『이 땅에 태어나서』, 숲, 1998, 16

¹⁷ 위의 책, 18-19

¹⁸ 위의 책, 22-23

¹⁹ 위의 책, 24

피지배층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그러한 체념이 불교와 같이 피안(彼岸)을 지향하는 사상으로 귀결된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벗어날 수 없어 보이는 현실에 대한 그러한 체념과 순응이야말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라는 사실은 아산의 부친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기는 했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자아의 실현과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부정적이었을 뿐 아니라, 장남인 아산에게도 그러한 체념과 순응을 강요했다. 기의 말이 없었던 그가 가장 긴 말을 한 것으로 아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몇 차례의 가을을 감행한 아산에게, 그것은 알량한 짓에 불과하다며 체념하고 농사꾼으로 살아갈 짓을 눈물로 호소한 사적인 것이다.²⁰

하지만 아산은 정 반대의 길을 택한다. 임궽정이나 홍길동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의 벽을 뛰어 넘고자 한 것이다. 고된 농사일 속에서도 얻어 읽은 신문에서 〈흙〉과 같은 소설을 읽으며 변호사의 꿈을 키웠으며,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수차례의 가을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도회지에 나와 힘든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법서를 사서 공부하여 보통고시에 응시하기까지 한다.²¹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부단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이루어간다.

이러한 아산의 위대함은 다른 기업인들과의 비교에서 잘 드러난다. 동시대를 살았던 기업인들 가운데, 진정으로 자수성가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산뿐이다. 아산의 라이벌이자 아산과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었던 호암 이병철을 비롯한 1세대 기업인들은 대부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가산을 이어받아 불려 나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의 곤경에 굴복하고 체념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노력하고 정진해 나가는 근저에는 세계와 자신의 가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 신유학자들이 불교를 배척하면서 자아의 무궁한 가치는 수련과 노력을 통해 세계에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다고 선언한 내용이 아산의 삶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유학적 가치가 아산 삶의 뿌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정적 시기²²에

²⁰ 위의 책, 17

²¹ 위의 책, 25

이루어진 학습의 영향이다. 아산은 소학교에 들어가기 전 3년 동안 할아버지 서당에서 천자문과 동몽선습, 소학, 사서, 시를 배웠으며, 뜻도 이해 못한 채 회초리가 무서워 달달 외웠다고 회상하고 있다.²³

6남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회고에 따르면, 아산은 어릴 때 배운 한학의 내용 가운데 『논어』와 『맹자』를 좋아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맹자』를 더 좋아했다고 한다. 자아에 대한 의식의 싹이 틀 무렵 배운 유학 경전은 아산에게 가장 근본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졌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곳에서 논하고 있는 아산 삶의 전반적 여정뿐 아니라 다음 장에서 논하게 될 세부적인 덕목들에서도 공자와 맹자, 그 가운데에서도 맹자의 분위기가 훨씬 묻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아산의 삶 전반에 유학적인 사고가 배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곤경에도 굴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극복한 것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체념을 거부하고 자아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실현되는 계기와 과정 또한 지극히 유학적이었던 것이다. 맹자가 양주와 목적을 거부한 것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라는 두 극단을 지양하기 위한 임은 이미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자아의 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이란 개인의 자연스러운 욕구 충족에서 출발하여,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위한 노력을 통해 그 범위가 확산되는 것이다.

아산의 삶은 이러한 유학적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있는 동시에, 테레사와 같은 (존경스런지만, 자연스런지는 않은) 헌신 일변도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는 개인적 욕구에만 함몰되어 있지도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동기부여와 무관하게 이타적인 규율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도 않았다.

그에게 자아 확장을 위한 노력의 원초적 동기는 지극히 자연스러우면서도 평범하고 일반적이다. 가난에서 탈출하여 유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어머니와 누이동생의 기억을 빌어, 자신이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장안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어 조선총독부보다 더 큰 집에서 살 것”이라고 말했음을 회상하고 있다. 그야말로

22 어떤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이 특정 시기에 획득되어야 하며, 그 시기가 지나면 획득 불가능하다는 발달의 비가역적 성격을 뜻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에릭슨(Erikson)의 이론에서는 유아기가 기본적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반면, 피아제(Piaget)의 이론에서는 이 시기가 감각운동적 사고를 획득하는데 결정적 시기라고 한다.

23 위의 책, 23

이기적인,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자아 중심적인 동기에서 출발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유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것은 절대로 평가절하하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유학은 지극히 상식적인 삶에 기반을 둔 도덕 사상이기 때문이다. 맹자가 말했듯이 동물의 한 종으로서 인간은 자신의 속성 대부분을 동물과 공유하지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는 동물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인간성을 실현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린 것이다.²⁴

인간다움, 즉 도덕성의 실현 또한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삶과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남들도 나와 똑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들의 간절함에 공감하여 그들을 배려하는 것일 뿐이다. 그 범위가 확대될수록 그 사람은 더욱 완성된 인격을 갖춘 큰 사람[大人]이자 인격자[人格者]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그 이상이자 최종 목표는 모두를 내 가족처럼 여기는 대동사회이다.

아산의 삶 전반은 이러한 확장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동기에서 출발하였지만, 그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삶의 범위를 끊임없이 넓혀 갔기 때문이다. 쌀가게 점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인정받아 가게를 인수한 후, 고향에 내려가 부친에게 논 2천 평을 사드림으로써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²⁵, 아우들을 정용에 끌려 갈 위기에서 구해냈을 뿐 아니라²⁶ 동생들이 그의 지원 하에 결혼을 하고 이후 탄탄한 사회생활을 이어나갔다는 사실은 어쩌면 그리 높이 평가할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금의환향하여 가족에 대해 베푸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학에서도 가족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은 크게 자랑할 일이 못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금수와 다를 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산이 유학에서 말하는 큰 사람[大人]으로 성장해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자아의 범위가 가족에서 그치기는커녕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확장되

24 『孟子』, 『離』卷, 下, 19, “人之所以異於禽獸者幾希, 庶民之去, 君子存之.”

25 정주영, 『이평에 태어나서』, 출, 1998, 36

26 위의 책, 43

기 때문이다. 아산이 기업인임을 감안할 때, 공감과 배려가 가족을 넘어 일차적으로 확장된 대상이 직원들임은 쉽게 짐작 가능하다. 이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안은 가장 원초적인 욕구인 먹는 것에 관계된 일이다. 아산은 스스로가 경험한 가난과 배고픔을 잊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그것을 심분 공감하여 현대가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점심을 제공하도록 배려한 것이다.²⁷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러한 확장의 범위는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1969년부터 89년까지 20년 동안 회장직을 맡아 지역사회학교 운동을 후원하였고, 1975년에는 기업을 공개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주식을 살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현대건설의 이익이 돌아가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대건설 개인 주식의 50%를 회사하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을 설립함으로써 현재까지 의료와 사회복지 지원 등의 사업이 다각도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

가진 사람보다는 사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이러한 정신 역시 맹자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맹자는 이상적인 정치인 왕도정치(王道政治)에 대해 설명하면서, “늙어서 부인이 없는 자를 흠아비라 하고, 늙어서 남편이 없는 자를 과부라 하며, 나이가 먹어 (동보이중) 자식이 없는 사람을 무의탁자라 하고, 부모가 없는 어린 아이를 고아라 하는데, 이 네 부류는 천하에서 가장 곤궁하면서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왕이 정령(政令)을 펼쳐 인을 베풀 때 반드시 이 네 부류를 우선시하셨습니다. 시경에도 ‘부자들은 편찮다. 이 곤궁한 이들이 가엽도다.’라고 하였습시다.”²⁸라고 말한 것이다.

아산 스스로가 말했듯이, 성공과 실패와는 별개로 확장을 위한 아산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서울 올림픽 유치 민간추진위원장을 맡아 올림픽을 성사시켰고, 북한을

²⁷ 위의 책, 312.

직원들과 먹을 것을 공유하며(장래에 있어서 유능한 재능) 가족의 풍질감을 느꼈던 시기는 아산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 아산은 해방 후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시작하여 1년에 만에 직원이 10여 명에서 80명까지 늘었을 때의 가족적인 분위기에 대해 “나 자신이 배고픈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더 처음부터 직원들 먹이는 것에 대해 우려했고, 우리 집사원도(아이들)와 열이도 우리 집안 인사들이 포함 모두 우리 어머니를 닮아 남 주는 손이 크고 인심이 좋았다.”라고 회상하며 그리워하였다. (위의 책, 51-53)

²⁸ 『孟子』, 「梁惠王」, 下, 5. “老而無妻曰鰥, 老而無子曰獨, 幼而無父曰孤, 此四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 文王發政施仁, 必先斯四者. 詩云 彼矣富人, 哀此糞穢.”

방문하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발의 초석을 다졌으며, 대선에 출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아산의 삶 전반은 성장기의 결정적 시기에 그의 뇌리에 박힌 “가족에게 그에 합당한 애정을 베풀 이후에 백성들에게 인자하게 대하고, 백성들에게 인자하게 대한 이후에 만물을 사랑한다.”²⁹라는 맹자의 핵심 사상을 기업인의 위치에서 실천하여 대동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3. 구체적 덕목에서 드러난 유학의 핵심가치

인성의 형성에 결정적인 시기에 접한 유학사상,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아산이 좋아했던 『논어』와 『맹자』의 영향은 아산의 삶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에게서 매우 인상 깊게 드러나는 중요한 덕목들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그 가운데 핵심적인 세 가지만을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1) 실수와 배움에 대한 태도

유학은 무엇보다도 배움을 중시하는 학문이다. 『논어』의 첫 구절이 “배워서 시의 적절하게 익히면 참으로 즐겁지 아니한가?”³⁰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은 암시하는 바가 매우 크다. 배움이라는 것은 작은 나에서 성현(聖賢)들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³¹ 충실히 익힘으로써 자아의 범위를 확대시켜 보다 커다란 나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와 관련한 전형적인 모델은 공자 자신이다. 공자는 자기 삶의 역정에 대해 “나는 열다섯에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삼십에 확실한 뜻을 세웠으며, 사십이 되어서는 흔들림이 없게 되었고, 오십에 천명(天命)을 알게 되었으며, 육십이 되어서는 무슨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림이 없었고, 칠십 살에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규범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³²라고 회상함으로써 유가적 도덕 교육의 핵심인 인격적 자기

²⁹ 『孟子』, 「盡心」, 下, 45.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³⁰ 『論語』, 「學而」, 1.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³¹ 주리는 『論語集註』에서 “배움이라는 것은 본받는 것이다.(學之道本於效法)”라고 풀이하고 있다.

수양이라는 개념의 선구자가 되었다.³²

이러한 배움과 자기 수양을 통한 확장에 대한 태도는 『노자』의 “학문을 하는 것은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며, 도를 행하는 것은 날마다 덜어가는 것이다.”³⁴라는 말과 극적으로 대비된다. 도교적 사유에서뿐 아니라 불교에서도 현상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 속에서 학문을 통해 개인의 사회성을 강화/확대에 나가는 도덕 지향적 태도는 유학의 핵심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배움을 통해 성장해 가는 인간상을 전제한다면, 과오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워 나가려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기독교나 불교와 달리 종교성이 거의 전적으로 거부되어 있는 유학적 견지에서 볼 때, 과오로부터 자유로운 완벽한 인간상은 도달해야 하는 최종 목표이자 이상일 뿐,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학에서 최고의 성인이라 여겨지는 공자 자신도 과오를 통한 배움에 대해 극도로 강조하고 있다. 진정한 인격자를 지향하는 사람의 필수 덕목 가운데 하나로써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는 데 서슴지 말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³⁵ 또한 실수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자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감탄해 마지않는 모습³⁶이나, 학문을 좋아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동일한 잘못을 두 번 반복하지 않는 것”³⁷이라고 대답하면서, 과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³⁸라고 선언한다.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인 인간관에 기초한다면, 어떤 과오를 저지르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³⁹ 인격적으로 보잘 것 없는

32 『論語』, 「為政」, 4,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33 Nivison, *The Ways of Confucianism*, Open Court, 1996, 82
 34 『老子』, 48장, “為學日益 為道日損”
 35 『論語』, 「學而」, 8, “君子不重, 則不威, 學則不固.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讒改.”(당일명 사옹이 「구부」, 25에서도 번역적으로 인용함) 참조
 36 『論語』, 「憲問」, 25, “蘧伯玉使人於孔子. 孔子與之坐而問焉, 曰, 夫子何為 對曰, 夫子欲寡其過而未能有也. 使者出, 子曰, 使乎! 使乎!”
 37 『論語』, 「雍也」, 3, “哀公問, 弟子孰為好學? 孔子對曰, 有顏回者好學, 不遷怒, 不瀆過. 不幸短命死矣, 今也則亡, 未聞好學者也.”
 38 『論語』, 「衛靈公」, 30, “過而不改, 是謂過矣.”
 39 『論語』, 「里仁」, 7, “人之過也, 各於其業. 觀過, 斯知仁矣.”

자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기 마련이며⁴⁰, 역으로 군자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했을 때 오히려 칭송을 받게 된다.⁴¹ 만약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책망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회는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⁴² 그런 사회의 지도자는 인격자가 아닌 위선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격 수양을 통한 자아 확장을 지향하는 유학에서, 과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배움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말로 수양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과오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배워 나가려는 이러한 태도는 아산의 삶 전반에 걸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아산은 “누구든 실수할 수 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순간 실수했다고 해서 그 실수 때문에 그때까지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⁴³, “경험 없는 일을 할 때마다 겪은 시행착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은 경험처럼 큰 재산은 또 없다. 새로 도전하는 일에서 벌어지는 시행착오를 나는 우리를 한 테두리 더 키워주는 훈련과정으로 생각했다.”⁴⁴ 라고 술회하면서, 동일한 잘못이 두 번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⁴⁵ 이는 실수와 배움에 대한 공자의 태도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다. 무언가 큰일을 새로 시작하려면 당연히 커다란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실수를 저질러 큰 손해를 보고 가슴 아파하며 반성하는 것도 또한 그 비용 중 일부이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간에 그 과정에서 얻은 배움과 깨달음을 통해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에 수긍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삶의 과정을 통해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아산은 바로 그러한 것을 생활화한 인물이었다. 태국 고속도로 건설 과정의 많은 시행착오나 현대자동차 공장부지 매입

40 『論語』, 「子張」, 8, “小人之過也必文.”
 41 『論語』, 「子張」, 21, “君子之過也, 如日月之食焉. 過也, 人皆見之, 更也, 人皆仰之.”
 42 『論語』, 「公冶長」, 27, “已矣乎, 吾未見能見其過而內自訟者也.”
 43 정주영, 188
 44 위의 책, 190
 45 위의 책, 188

과정에서 집중 호우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 보상을 해야 했던 일⁴⁶ 등 무수한 어려움을 스스로 “수업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⁴⁷

엄청난 빗으로 현대조선을 설립하여 처음 주문받은 배를 만들 때, 필요한 것보다 두 배나 되는 철판을 주문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철판을 잘랐는데 다른 쪽에서는 받지 못했다고 우겨 다시 잘랐다가 나중에 찾아 낭비되는 것과 같은 실수가 다반사였는데도, 미칠 것 같은 마음을 꼭 누르고 욕은 하더라도 분책은 하지 않았던 것⁴⁸도 그러한 신념의 표출이었다.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소학교밖에 마치지 못했지만, 배움에 대한 그의 열정과 실천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이야말로 그가 한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기업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된 농사일 속에서도 신문물을 얻어 읽으며 배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막노동을 하면서도 법서를 독학하여 고시에 응시한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니와, 빈대에게서조차 배움을 얻었다는 사실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아산은 인천에서 합숙소 생활을 하며 막노동을 할 때,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이라 몇몇 사람이 빈대 피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밤상 위로 올라가 잤더니 빈대는 상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물었으며, 다시 머리를 짜 내어 밤상 다리에 물을 담은 양재기를 고여 놓고 잤더니 빈대가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 사람들을 향해 떨어져 피를 빼는 모습을 보고 “하물며 빈대도 목적을 위해서는 저토록 머리를 쓰고 저토록 죽을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성공하지 않는가? 인간도 무슨 일에도 절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죽을힘을 다한 노력만 쏟아 붓는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술회하고 있다.⁴⁹

공자는 “민첩한 태도로 배우기를 좋아하며,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⁵⁰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빈대에게 배웠던 사건보다 이에 더 잘

46 주민들은 연대지동저 부지 배반이 지역 침수의 원인이므로 주장하였다.

47 위의 책, 139

48 위의 책, 186-7

49 위의 책, 41-42

50 『論語』, 「公治長」, 15, “敏而好學, 不恥下問”

어울리는 것은 없을 것이다. 빈대의 노력을 보고 경이로워한 사람은 아산 혼자만이 아닐 것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그로부터 아산과 같은 교훈을 얻은 사람은 결코 흔치 않을 것이며, 그 교훈을 실천에 옮긴 사람은 더더욱 흔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배움에 대한 태도와 열정, 그리고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아산과 현대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신용(信)과 정직(直)

양주에서 노자와 장자로 이어지는 도교 사상 및 불교 사상과 유학의 차이점을 고찰할 때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회성과 도덕규범의 가치에 대한 인정 여부이다. 도가사상은 기본적으로 경물중생(輕物重生)의 대원칙에 근거하여, 자신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계하고 배척한다. 불교사상 역시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해탈이며, 자비를 비롯한 모든 덕목은 그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도구적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유학에서는 사회성과 도덕성을 배제한 인간이란 인간이라 할 수 없다고 본다.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물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발전시키는 길뿐이다.⁵¹ 인간과 짐편지의 유전자가 95% 이상 일치한다는 현대의 연구를 인정한다고 해도, 맹자의 관점에서 볼 때 동물은 어디까지나 동물일 뿐이다. 어떤 존재의 본성, 즉 본질적 특징은 다른 종과의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⁵² 그렇다면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는 무엇일까?

맹자는 우리에게 사고 실험을 해 볼 것을 요구한다. 맹자의 사고 실험을 현대적으로 변안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당신이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 보라.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 하얀 뼈가 튀어나 오고 피가 이리저리 튀고 있다. 당신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아마도 마음이 절망하고 내려앉으면서 마음에 아픔을 느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51 『孟子』, 「離婁」下, 19, “人之所以異於禽獸者幾希, 庶民去之, 君子存之”

52 맹자는 『告子』, 下, 19에서 인간의 본성이 생물학적 욕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개의 본성과 소의 본성이 다를 바 없고, 소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다를 바 없다는 말인가? (狗之與人異性與牛之性, 牛之性與人異性與) ”라고 되문고 있다.

“내 뼈가 튀어나오고 피가 된다면 얼마나 아플까?”하는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낀 것이다.

그 사람은 당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아무 경황이 없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반응이 인위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중에 확인해 보았더니 그 사람이 당신의 원수임을 알게 되어서 통쾌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보기 힘들다. 당신의 선입견이 개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겨난 반응, 그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⁵³

그렇다면 다른 동물들도 그러한가? 동물의 왕국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집단을 공격해서 사냥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 마리가 사냥을 당하면 다른 동물들이 그 주위에서 가슴 아픈 표정을 짓는가, 아니면 전혀림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가? 그 동물의 부모가 아니라면, 무관심하게 풀을 뜯는다. 초식동물들은 포식자가 필요 이상의 사냥을 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맹자에 따르면 이러한 점이야말로 인간의 종차이자 본성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자기 성원들의 기쁨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 있다. 인간에게만 고유한 도덕이란 그 실마리를 키우고 확장시키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종차는 사라지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이곳에서 논하고자 하는 신용과 정직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덕목이다. 매킨타이어는 “다른 존재와 구분되는 인간의 삶이 존재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규칙들이 존재하며, 또 최소한의 문명화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또 다른 규칙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진실 말하기”와 “약속 지키기”가 그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다.⁵⁴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적 존재에게 그러한 규범이 필수 덕목으로

⁵³ 『孟子』, 「公孫丑」, 上, 6, “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惻隱惻隱之心——非所以內文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⁵⁴ A. MacIntyre, A Short History of Ethics, Routledge & Kegan Paul, 1967, 103

존재하지 않는다면, 언어의 사용은 무의미해지고 사회성은 극도로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⁵⁵

따라서 공자가 신용과 정직을 극도로 강조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유학의 핵심 덕목인 인(仁)에 대한 언급이 『논어(論語)』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한 이상적 인격상을 성취하기 위해 언급되는 많은 덕목들 가운데 “신용과 정직”이라는 덕목이 무려 36차례나 등장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보아야 할 사실이 있다. 완성된 인격자인 인자(仁者)의 필수적인 덕목으로 흔히 충서(忠恕)가 거론되지만, 실제로 『논어』에서 ‘충(忠)’이 ‘서(恕)’와 짝을 이루어 등장한 것은 딱 한 번뿐이며, 그것도 공자가 아닌 제자 증삼(曾參)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⁵⁶ 후에 주희의 도통설(道統說)을 통해 증삼이 공자의 수제자로 인정되면서 충서가 인을 성취하는 핵심 덕목임이 자명한 것처럼 여겨져 온 것이다.

반면 『논어』에서 ‘충(忠)’이 신용이라는 덕목과 짝을 이루어 등장한 것은 6차례나 된다. 그 가운데 공자가 직접 말한 것은 세 번이며⁵⁷, 증삼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 한 번⁵⁸, 또 다른 제자인 자장(子貢)의 말이 두 번⁵⁹, 그리고 『논어』의 편집자가 공자의 핵심적인 가르침 네 가지를 언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 한 번⁶⁰이다. 자신이 완벽한 인격자의 핵심 덕목으로 공자 자신이 내심 더 중시했던 것은 ‘충서(忠恕)’보다는 ‘충신(忠信)’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다.

신용은 당연히 정직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며,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다움의 핵심 구성요소이자, 사회와 국가 운영의 근본 원리이기도 하다. 공자는 신용이 없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은 마치 핵심 부품이 빠진 수레가 제 구실을 할 수

⁵⁵ 위의 책, 77

⁵⁶ 『論語』, 「里仁」, 15, “子曰, 參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 唯. 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⁵⁷ 『論語』, 「學而」, 8, “子曰. 君子不重則不威, 學則不固.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동일한 내용이 뒤에서 한 차례 더 나온다) / 『論語』, 「公冶長」, 28, “子曰, 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

⁵⁸ 『論語』, 「學而」, 4,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為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⁵⁹ 『論語』, 「顏淵」, 10, “子張問崇德辨惑. 子曰. 主忠信. 徙義. 崇德也” / 『論語』, 「衛靈公」, 6, “子張問行. 子曰 言忠信. 行篤敬”

⁶⁰ 『論語』, 「述而」, 25, “子曰以四教. 文行忠信”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으며⁶¹, 인생이란 본래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정직하지 않고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요행을 불과하다고 선언한다.⁶² 나아가 신용이란 식량이나 강한 군사력보다도 국가 유지에 더욱 필요한 것이며⁶³, 정직한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야만 사람들이 그를 볼 모델로 삼게 되어 국가에 인격자들이 늘어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⁶⁴ 사회성과 도덕규범을 인간의 본질적 속성으로 여기는 유학 사상에서 신용과 정직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나 사회적 인 측면에서나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덕목인 것이다.

아산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신용과 정직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기업가로서 성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덕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은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사실 기술을 통해 성공의 발판을 다지고자 하던 시기부터 그에 대한 신념은 이미 몸에 배어있었다. 막노동판과 옛 공장 등을 전전하다가 처음 얻은 안정적 일자리인 쌀가게의 사장이 6개월 만에 그에게 장부 정리를 맡겼을 뿐 아니라⁶⁵, 2년 만에 아들이 아닌 그에게 너무나도 좋은 조건으로 가게를 넘기기로 결정한 것⁶⁶은 그가 보여준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약관의 나이와 그동안의 고달팠던 처지를 감안할 때, 그의 잠재의식 속에 어린 시절 유학 경전 학습의 영향이 뿌리박혀 있지 않았다면 그러한 모습이 쉽게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중일전쟁과 쌀 배급제의 시행으로 쌀가게를 포기하고 자동차 수리공장을 시작할 때 사채업자가 신용만을 담보로 거래의 돈을 빌려준 것⁶⁷이나, 수리공장 잔금을 치르자

61 「論語」, 「爲政」, 22, “子曰.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夫車無輿. 小車無軌. 其何以行之哉”
 62 「論語」, 「雍也」, 19, “子曰. 人之生也道. 罔之生也幸而免”
 63 「論語」, 「顏淵」, 7, “子貢問政.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曰. 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 曰. 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64 「論語」, 「顏淵」, 22, “樊遲問曰. 子曰. 知人. 樊遲未達. 子曰. 舉直錯諸枉. 能使枉者直. 樊遲退. 見子夏曰. 鄉也吾見於夫子而問知. 子曰. 舉直錯諸枉. 能使枉者直. 何謂也. 子夏曰. 當哉言乎. 舜有天下. 選於衆舉堯陶. 不仁者遠矣. 滿有天下. 選於衆舉伊尹. 不仁者遠矣”
 65 정수영, 34
 66 위의 책, 36
 67 위의 책, 39. 당시 사채업자는 정미소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쌀가게를 할 때 아산의 신용을 신임하여 무담보로 그 돈을 빌려주었다 한다.

마자 불이 나서 빗더미에 올라앉아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시 신용만을 담보로 더 큰 돈을 빌려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평소 아산이 보여준 신뢰의 결과였다.⁶⁸ 이러한 신용과 정직의 덕목이 유학 교육을 통해 체화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산은 애써 닦은 기반을 잃고 다시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했을 것이며, 설사 재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세계적인 기업 현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아산의 면모는 이후에도 위기의 순간마다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주목할 만한 첫 번째 사건은 1953년 4월 현대건설이 수주한 고령교 복구공사 당시의 일이다. 대구와 거창을 잇는 이 공사는 당시에 정부가 발주한 최대 규모의 공사였지만, 복구보다는 신용이 쉬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수심의 차이가 심한 낙동강의 특성과 홍수로 인해 교각이 쏠려 내려가는 등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게 된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공사 시작 당시보다 물가가 100배가량이나 올라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적자가 날 판이었다. 그 때 주변에서는 공사를 중단하자고 하였지만, 아산은 “사업가는 신용이 제일인데, 신용을 잃으면 끝이다.”라며 매일 빛을 얻으려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동생의 유학비도 보내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우와 매계, 동료의 집까지 팔아 얼추 공기를 맞추어 완공한 이 공사에서는 애초 계약한 공사비보다도 더 많은 적자를 댔지만⁶⁹, 이후 정부가 그 신용을 높이 평가해 정부 공사를 큰 어려움 없이 수주하게 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진화위부의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⁷⁰

1965년 선진 16개국 29개 업체와 겨루어 수주한 건설업계의 역사적인 사건인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는 해외판 고령교 공사를 할 만한 사건이었다. 당해년도 국내의 공사 전체 계약액의 60%가 넘는, 단일 공사로는 최고의 계약 금액인 이 공사에서도 전반적인 기술의 낙후성과 경험 부족, 전근대적인 공사 관리 체제의 취약점, 기후와 토질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고, 결국 다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아산은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막아버리는 것을 할 수는 없다면서 절대 불가를 명령했

68 위의 책, 37-39
 69 위의 책, 64-67
 70 위의 책, 69

고, 결국 완공은 하였지만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고령교 공사와 마찬가지로 이 공사 역시 신용에 대한 보상을 안겨주었다.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는 동시에 현대건설의 근대화를 이루어냈고, 최초의 고속도로 시공 실적으로 국내 고속도로 건설에서 주도적 역할 담당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건설 업체로 급성장하게 된 것이다.⁷¹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도 아산의 이러한 정신은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난다. 옥천과 영동 사이의 소백산맥을 4킬로 관통하는 터널 공사는 퇴적층의 토양으로 인해 무너지기를 밥 먹듯이 하여 인부들이 작업을 꺼리고 공기를 맞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아산은 다시 한 번 이익보다 신용과 명예를 택하기로 결심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두 배로 올렸을 뿐 아니라, 공기를 맞추기 위해 값이 두 배나 비싼 조강페인트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여 단양의 시멘트공장을 비상체제로 가동한다. 설상가상으로 철도 화차 배당이 돌아오지 않아 수송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철도를 포기하고 육로로 수송하는 고육책까지 동원하여 3개월이 소요될 공사를 25일 만에 해내게 된다.⁷²

이상의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기업가로서 아산의 성공 신화에는 신용과 정직이라는 덕목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어린 시절의 유학 교육은 그러한 덕목을 갖추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3) 아산, 광자(廣者)의 화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상적이고 완성된 인격을 대표하는 덕목은 중용(中庸)일 것이다. 중용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덕목이라기보다는 여타 기질들이 적절한 균형 상태를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덕목이다. 어떤 기질이든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용기(勇氣)라는 덕목을 예로 들어 보자. 전쟁터에서 두려움이 전혀 없이 싸움터를 누비는 군인에게 그 덕목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이는 지나치게 성급하고 피상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그러한 군인은 곧 사망해 버릴 것이며, 죽은 군인은 전혀 소용이

71 위의 책, 100-102

72 위의 책, 122-126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진정한 용기라는 덕목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의 기질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술어는 “무모함”인 것이다.

물론 겁이 많아 위협으로부터 생겨나는 충동에 지나치게 굴복하는 것을 용기라고 부를 수 없음은 더더욱 자명하다. 그렇다면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 그것은 과도함을 나타내는 “무모함”과 결어를 나타내는 “비겁”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⁷³ 위험한 상황에 굴복하고자 하는 자연발생적인 충동을 극복하되, 지나치게 선부르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행동하여 일을 그르치지 않는 신중함을 갖추어야 비로소 용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자 역시 중용이라는 덕목의 중요성을 심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공손함이 지나쳐 적절함을 잃게 되면 괜하게 수고롭기만 하고, 신중함이 지나치면 나약함이 될 수 있으며, 용기가 지나치면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정직함이 지나치면 각박함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⁷⁴ 그리고 그 자신도 온화하지만 엄격함을 잃지 않고, 위엄을 갖추면서도 사람들에게 사납게 대하지 않았으며, 공손하면서도 편안하게 행동하였다⁷⁵고 한다.

하지만 이상은 이상일 뿐이다. 중용의 덕을 규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중용의 덕, 즉 적절함이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는 것은 위에서 사례로 든 것과 같은 비유적인 몇 가지 사례에서나 가능할 뿐,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⁷⁶ 결국 “적절함”이라는 말이 가진 추상성으로 인해 중용이란 이미 그러한 덕목을 체화하고 있는 현명하고 사려 깊은 사람의 판단에 의거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중용의 덕목에 대한 이론적 규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는 무한퇴행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실제로 공자는 중용의 덕을 갖춘 완성된 인격, 즉 인(仁)이라는 덕목이란 전설 속에 등장하는 고대의 성왕들이나 갖춘 것으로 치부했을 뿐, 당대의 훌륭한 인격자로 지칭되

73 MacIntyre, 64

74 論語, 「泰伯」, 2. “哉而無禮則勝. 橫而無禮則暴. 勇而無禮則戾. 直而無禮則絞”

75 論語, 「述而」, 38. “子溫而厲. 威而不猛. 恭而安”

76 MacIntyre, 66-67

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한 덕목을 갖추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대답으로 일관한다. 제자들은 스승인 공자야말로 그러한 덕을 갖추었다고 주장하지만, 공자 자신은 그저 배우기를 좋아하고 열심히 실천하여 그러한 덕을 갖추고자 노력할 뿐이라고 대답한다.⁷⁷

철인왕이 다스리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처럼, 중용의 덕을 갖춘 이상적 인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이상의 가능성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을 놓쳐서는 안 됨을 상기시키면서,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와 인간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할 뿐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존재 가능한 인간상 가운데 유학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유형이란 무엇일까? 맹자는 그에 대해 매우 설명하고 있다.

맹자가 말하였다. “공자 선생께서는 ‘중용의 덕을 갖춘 사람을 얻어 함께 할 수 없다면 반드시 광자(匡子)나 견자(顔子)와 함께할 것이다. 광자는 진취적이고, 견자는 절대로 어기지 말아야 할 규칙을 견지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공자 선생께서 어찌 중용의 덕을 갖춘 사람을 원치 않았겠는가? 그러한 사람을 반드시 얻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한 것이다.” (제자인 반공이) 물었다. “어디해야 광자라고 할 수 있는지 어췌어보아도 괜찮겠습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금장이나 증석, 목피와 같은 사람들이 공자 선생께서 말씀하신 광자이다.” (반공이)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을 광자라고 부릅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그 뜻이 높고 커서 ‘옛 사람이여, 옛 사람이여!’라고 하곤 하지만, 평소엔 그 행실을 살펴보면 그 말만 못하기 때문이다. 광자조차 얻을 수 없다면 불결한 것만은 행하지 않으려는 선비를 얻어 함께하고자 하셨으니, 견자는 또 광자의 다음이 되는 것이다.”⁷⁸

유학에서 최종 목표이자 이상으로 여기는 것은 중용의 덕을 갖춘 완전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이상일 뿐임을 공자와 맹자 모두 알고 있었다. 그렇다

77 『論語』, 「述而」, 34, “若聖與仁則吾豈敢。抑爲之不韋。傷人不倦則可謂云爾矣。”

78 『孟子』, 「盡心」, 下, 37, “孟子曰。孔子不得中道而與之。必也狂狷乎。狂者進取。獵者有所不爲也。孔子豈不欲中道哉。不可必得。故思其次也。敢問何如斯可謂狂矣。如琴張。曾皙。牧皮者。孔子之所謂狂也。何以謂之狂也。其志嘒嘒然曰。古之人古之人。夷考其行而不掩其者也。狂者又不可得。欲得不屑不棄之士而與之。是獵也。是又其次也。”

면 일반적인 학자들이 인격 수양의 현실적인 모델로 삼기 위한 숭상 받을 만한 인간상이 필요한데, 맹자는 공자의 입을 빌어 광자와 견자가 바로 그들임을 천명한 것이다.

맹자가 말한 바대로 광자는 높은 뜻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지만,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해 완벽한 실천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며, 견자란 그보다 소극적으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그어 놓고, 그것을 철석과 같이 지키는 사람을 일컫는다. 결국 유학에서는 보수적으로 현실적 규범을 묵수하는 소극적인 인간상보다는 설사 실천이 다소 못 미치더라도, 커다란 이상을 품고 노력하는 진취적인 인간상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자와 맹자 두 사람 모두 그 자신이 광자의 표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춘추시대 말기에 이미 쇠퇴하여 권위를 잃은 주나라를 되살려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겠다는 일념으로 20년 동안 철완천하(鐵冠天下) 하였으나, 사람들로부터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줄을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으며⁷⁹, 말년에는 반란군의 우두머리에게 초창을 받고서 그에 응하고자 했다가, 제자들에게 비난을 받아 주나라를 부흥시키고자 했을 뿐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한다.⁸⁰ 맹자 역시 자신이 사숙(私淑)한 공자의 전례에 따라 전국시대의 열국을 돌면서 왕도정치(王道政治)를 부르짖었으나, 병기(兵機)와 종형가(縱橫家)들을 동용해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했던 당시 제후들에게 그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다.⁸¹

한 가지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상어에서 “광(狂)”이란 말이 가진 “미쳤다”라는 뜻이 여기에서도 완전히 탈각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니, 그 반대로 일상어의 뉘앙스가 상당 부분 남아 있어야만 그 말의 뜻이 올바르게 살아난다. 유학의 창시자이자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공자나 맹자도 일부 추종자들을 제외한 당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고상한 뜻을

79 『論語』, 「憲問」, 38, “子路宿於石門。晨門曰。奚自。子路曰。自孔氏。曰。是知其不可而爲之者與”

80 『論語』, 「陽貨」, 5, “公山弗擾以費畔。召。子欲往。子路不說。曰。未之也。何必公山氏之之也。子曰。夫召我者。而豈徒哉。如有用我者。吾其爲東周乎”

81 현실적으로 전혀 쓸 수가 없었지만, 이상을 부르짖는 나름 유명한 학자들 막대했다는 오명을 쓸 수도 없었다. 그래서 제후들은 적지 않은 금액의 노비를 제공하며 뜻이 맞는 다른 군주를 만나볼 것을 권유하거나, 전혀 실권이 없는 직위를 주어 모양새만 들 갖추었다.

펼치고자 하더라도 현실과의 괴리가 지나치게 크다면 그는 몽상가 혹은 그야말로 '미친놈'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류 역사의 커다란 진전은 대부분 그런 '미친놈'들의 황당한 생각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간이 유인원에서 진화했다는 생각이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생각,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생각, 신은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인간의 사고는 하부구조에 의해 지배된다는 생각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수한 진보들이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을 생각해내고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한 업적을 성취해 낸 그 0.00001%의 '미친놈'들은 실상은 천재요, 선구자요, 예지자인 것이다.

대를 이은 가난에 찌든 삶을 물려받은 농부의 자식에서 한국 최고의 기업을 일구어 낸 아산에게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수사는 없을 것이다. 앞서 한 차례 언급했듯이, 아산은 성공한 1세대 기업인들 가운데 "자수성가"라는 말이 가장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가 남들과 같이 평범한 길을 걸었더라면 그러한 성취를 이룰 수 없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의 삶은 무모하고 미친 듯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될성부른 사람은 백일부터 다른 법이다. 가을을 거둬하여 서울에 자리를 잡은 아산은 강원도에서 오신 어머니를 전차로 모시고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던 중에 중앙청 앞에서 내려자고 하더니 "저게 조선총독부예요. 저는 장안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어서 저것보다 더 큰 집에서 살 거예요."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어머니께서 "야야, 혼부 아들이 무얼 가지고 그리 뉘단 말이나. 헛된 꿈꾸지 말고 착실히나 살아라."라고 말씀하시자 정색을 하면서 "아니예요. 저는 꼭 그렇게 될 거예요."라고 말했다고 한다.⁸² 상식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아산의 어머니 말씀이 옳은 것이고, 아산은 몽상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산 자신이 슬피하듯이, 그러한 포부와 자신이 있었기에 이후의 도전과 성취가 가능했던 것이다.

광자로서 아산의 면모가 처음으로 드러난 사건은 현대건설을 출범시킨 사건이었다. 해방 후 자동차 수리업을 하고 있던 아산은 보다 큰 사업을 결심하게 된다. 당시에는 건설업이나 자동차 수리업이나 관청과 미군에서 나오는 일거리가 대부분이었는데,

⁸² 정주영, 위의 책, 50-51

건설업자들이 자신보다 수십 배 이상의 수금을 하는 것을 보고, 기왕이면 큰 돈 받아내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친구와 동료들은 물론 매제까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자본도 경험도 없이 무모한 짓 벌이지 말고, 잘 돌아가는 자동차 수리업이나 열심히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산은 결심을 실행에 옮겼으며, 그것이 "무모하다"는 말을 들었던 최초의 사건이었다.⁸³

무모한 도전의 연속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일은 누가 뭐라 해도 현대조선의 조선소 건설과 관련된 사건일 것이다. 이전부터 꿈은 꾸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던 일이었던 조선소 건설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는 정부의 권유였다.⁸⁴ 당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선박 건조 실적이 1만 7천톤 급이었는데, 50만톤 급의 조선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필요한 차관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니, 미국과 일본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신 나간 미친놈 취급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⁸⁵ 같은 고생 끝에 영국 은행과 차관 도입에 성공적으로 협의했으나, 영국의 수출신용보증국에서는 4~5천만 달러 어치 배를 살 선주를 구해오지 않으면 차관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날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조선소에서 배를 사 줄 선주를 찾아 나서, 울산 미포만의 초라한 백사장 사진과 지역 지도 한 장, 그리고 빌린 26만 톤급 유조선 도면을 들고 다니며, "이런 배를 사준다고 하면 영국에서 돈을 빌려 백사장에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며 돌아다녔으니, 이보다 더 미친 짓은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오나시스의 차남과 계약을 맺고 차관을 도입하는 데 성공하였다.⁸⁶ 그리고는 1972년 기공식 후 2년 3개월 만이라는 최단 시일에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유조선 2척을 건조해낸 기록을 세계조선사에 남겼으며, 1차 공사 도중에 시작한 확장공사를 통해 1975년에는 최대 선 건조 능력을 갖춘 조선소로 재탄생시키게 된다.⁸⁷

오일 쇼크를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중동 진출을 시도한 것 역시 아산만이 할

⁸³ 위의 책, 53-53

⁸⁴ 위의 책, 163

⁸⁵ 위의 책, 164

⁸⁶ 위의 책, 168-79

⁸⁷ 위의 책, 184

수 있는, 아산다운 일이었다. 일을 저지르는 아산의 스타일에 익숙하던 사람들뿐 아니라 아우조차 회사 자체가 망할 것이라며 한사코 반대했지만 결국은 해 내었고⁸⁸, 타의에 의해 오른 지위였기는 하지만 올림픽 유치 민간 추진위원장으로서 국무총리와 IOC 위원조차 비관적이고 비협조적이었던 상황에서 결국 서울 올림픽 유치를 이끌어 낸 일은 광자의 화신으로서 아산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물론 언제나 성공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들고자 했던 염원에도 불구하고 현대가 노사분규의 대표 격이 되었다거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뽑히지 못한 일 등 꿈을 이루지 못한 일도 비밀비재하다.

그러나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내는,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룹을 이룩해내는 업적을 이루는 기초가 된 것은 바로 광자의 정신이며, 역으로 광자의 정신이 없었다면 그러한 업적은 가능하지조차 않았을 것이다. 어린 시절 그가 좋아했던 맹자의 진취적인 도전 정신은 기업가로서의 아산에게 가장 커다란 자산이 되었던 것이다.

4. 맺으며 - 아산, 그의 삶과 생각의 뿌리로서의 유학사상

자신의 삶을 통해 중요한 업적과 궤적을 남긴 사람들에게는 이정표가 될 만한 사상이 있고 철학적인 지향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어떤 문화권에서 태어났는가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되지만, 그것이 진부가 아님은 분명하다. 동일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삶을 영위했다라도 전혀 다른 사상에 기초해서 정 반대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문화권이나 어린 시절의 교육과 같은 환경의 영향뿐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의지 역시 크게 작용한다. 위인들의 삶에서는 전자보다 후자가 두드러지기 마련이며,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산이 유학 사상, 그 가운데에서도 진취적인 맹자의 유학 사상을 자기 삶의 이정표로 선택한 것은 그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커다란 이유가 되었음에

⁸⁸ 위인책, 207-208

틀림없다. 하지만 이슬람교가 특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랍권과는 달리,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사상이 유불선(儒佛仙), 삼교(三教)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아산이 반드시 유학 사상을 선택해야 할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극도로 가난했고, 그로 인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꿈을 접어야 했던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을 고려한다면 체념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현세의 삶에 순응하면서 내세를 기약하는 불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불교가 흥성했던 시기 중국과 한반도의 사회상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아산은 곤경에 순응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려는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불굴의 의지를 통해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 그의 위대함은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그에게 이정표가 되어준, 동시에 그가 이정표로 삼고자 선택한 것이 바로 유학 사상이었던 것이다.

유학은 불교와 달리 현세의 가치를 긍정하고 현실의 부조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상이며, 극단적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를 지양하고 자연스러운 일차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로부터 도덕으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중도의 사상이다. 유년기 교육의 영향도 크게 작용했지만, 진취적인 기질과 의지의 화신인 아산은 자기 스스로의 인지 어부와 무관하게 유학사상,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이정표로 선택한 것이다.

유학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인파 그 예비 정치인으로서 학자의 사상이지만, 가난으로 학업마저 포기해야 했던 아산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일차적으로 가난의 극복일 수밖에 없었고, 기업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1세대의 대표적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서 아산의 삶에 공맹의 영향이 크게 드러나는 것은 어찌 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삶 전반은 일신(一身)이라는 작은 자아에서 가족, 동료, 집단, 사회, 국가로 관심의 폭을 넓혀감으로써 자신의 확장을 통한 대동사회의 구현이라는 유학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두드러진 덕목들은 그의 생각과 행동의 기저에 유학 사상의 영향이 깊게 뿌리박혀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덕목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첫 번째는 과오와 배움에 대한 태도이다. 그는 과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배움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유학의 일차적 덕목을 누구보다 잘 실천한 기업인이다. 둘째는 정직과 신용이다. 이 둘은 현세 지향적인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일 수밖에 없다. 아산에게 이 덕목이 특히 도드라지는 이유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조차 그것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 가치에 대한 굳은 신념과 실천 의지를 잘 보여주며, 그것이야말로 범인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다.

마지막이자, 아산에게서 가장 두드러지는 유학적 덕목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고와 태도이다. 유학자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중용의 덕을 갖춘 인간상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인(聖人)에게나 허용되는 그야말로 이상일 뿐이다. 맹자가 선언했듯이, 현실적으로 유학적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인간상은 '미친 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고와 행동을 겸비한 사람이다. 한국의 모든 기업인 가운데 아산만큼 이에 잘 어울리는 사람은 단연코 없을 것이다. 그는 광자(狂者)의 화신이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와 행동의 뿌리는 그가 선택한 공맹의 유학이었던 것이다.

참고 문헌

정주영, 『이땅에 태어나서』, 솔, 1998
 조병두, <논어의 인간 경영론과 현대 기업경영에서의 활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919
 정문숙, <아산 정주영 회장의 리더십 연구>, 울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1
 楊伯峻, 『孟子譯注』, 北京, 中華書局, 1984
 楊伯峻, 『論語譯注』, 北京, 中華書局, 1980
 『荀子』, 漢文大系 15권
 陳鼓應, 『老子註譯及評介』, 香港, 中華書局, 1987
 馮友蘭, 『中國哲學史』, 北京, 中華書局, 1992(1961년 1판)
 朱喜, 『論語集註』
 朱喜, 『孟子集註』
 朱喜, 『朱子語類』
 David S. Nivison, *The Ways of Confucianism*, Open Court, 1996
 A. MacIntyre, *A Short History of Ethics*, Routledge & Kegan Paul, 1967
 H. G. Creel, 이성규 역, 『공자-인간과 신화』, 지식산업사, 1988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 예문서원, 1995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소, 『강좌중국사』, 지식산업사, 1989
 이덕일, 『사회로 보는 조선역사』, 석필, 1998
 김태길, 『윤리학』, 박영사, 1998(1964 초판)

<Abstract>

In the background of the extraordinarily distinguished life and work of the Asan exists the strong influence of Confucianism. Among the dominant ideologies of East Asia, he chose Confucianism rather than Buddhism as a milestone of life so that he refused the resignation and compliance and lead a life of constant challenges and fulfillment with positive and optimistic attitude toward the world and the humans. He also avoided both the narrow-minded egoism represented by Taoists, especially that of Yangtzu(楊朱) and the unnatural utilitarian altruism exhibited in the thoughts of Mozi(墨子) and sought to extend the natural human desire to achieve the great Datong(大同) society which is the ideal of all Confucian scholars.

Confucian values are more evident in the specific virtues in Asan's life. Especially three major virtues are prominent : passion for learning, belief in trustworthiness, and adventurous spirit. Asan was an entrepreneurs who not only recognized the value and importance of the mistakes but also put the theory of cultivation of Confucianism that we should learn from our own mistakes so that we could be a big man[大人] into practice better than anyone else. In addition Asan showed faith and commitment to trustworthines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virtue in the this-world-oriented Confucianism by sticking to it even in the seemingly impossible situation.

The most remarkable and representative Confucian virtue in Asan is adventurous and challenging thoughts and attitudes. Just as the expression of Mencius who is his favorite Confucian, Asan is the incarnation of the 'Crazy Man'. Maybe it's in no way easy to find a man of more confidence and adventurous and challenging spirit which is the most eminent characteristic of the 'Crazy Man' whom he regarded as the best model not in the ideal but in the reality than Asan.

In conclusion, it was the Confucianism of Confucius and Mencius that presented Asan with a milestone in the specific codes of conduct as well as in his general life, and he himself had made the choice.

Key Words : Asan, Confucianism, the 'Crazy Man', passion for learning, belief in trustworthiness, Datong(大同) society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서 바라본 정주영의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of Chung Ju Young:
in Light of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김이석 (시장경제연구소 소장)

<목 차>

1. 서 론
2. 기업가정신 이론
3. 정주영의 기업가정신의 비밀을 찾아서
4. 결 론
- 참고 문헌

<국문 초록>

이 글은 오스트리아학파 기업가정신 이론의 관점에서 정주영 회장의 연설, 자서전, 여타 자료 등에서 드러난 그의 기업가정신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다룬다. 그는 어떤 식으로 불확실성을 감당했으며, 또 이윤기회는 어떤 식으로 포착했을까?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말, "이봐, 해봐어"는 불확실성의 감당과 이윤기회의 포착 중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그의 말을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정주영 회장은 또한 신용을 복숨처럼 중시 했는데, 이는 기업가정신 이론의 논의와는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는지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주영 회장의 독특한 인재 키우기는 기업가정신 이론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분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업가정신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나름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정주영, 기업가정신, 불확실성의 감당, 이윤기회에 대한 기민성, 키즈너, 오스트리아학파